



|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성모님 <도메니코 기를란다오, 목판에 템페라, 1491년 경. 파리 루브르박물관 소장>

금주의 성화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전갈을 받으신 성모님께서 연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성녀를 방문하신다. 엘리사벳 성녀는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다”고 하는 찬사를 성모님께 드리는데, 성모송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다. 성모님께서는 이에 답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로 시작하는 찬가 ‘마니피캣’을 노래하신다. 성모님의 젊다 못해 어리신 얼굴과 엘리사벳 성녀의 나이 들어 주름진 얼굴이 멋진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오늘의 전례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39-45 참조)

엘리사벳 성녀와 성녀의 태 안에 있는 세례자 요한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시어 성모님의 몸 안에 계신 줄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복되십니다, 믿으신 분!”이라는 인사는 성모님께 바치는 찬사이지만, 우리 역시 같은 신앙을 하느님께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몸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을 줄 안다면,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1독서 미카 5,1-4ㄱ 제2독서 히브 10,5-10 복음 루카 1,39-45

화답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 12월의 신앙심천 캠페인 : 매일 작은 보속을 바칩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전상규 베르나르도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오늘은 대림 4주일입니다. 1독서에서 미카 언자는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했고, 복음은 해산을 앞둔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그 소식을 접한 백성의 기쁨이 오늘 전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살아있는 편지', 인간을 향한 살아계신 하느님의 연서(戀書)라고 감히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임박했다는 소식과 이를 예고하는 성경 말씀들이 어미의 뱃속에서 조차 '즐거워 뛰어 논'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나아가 우리 생활을 지탱하는 원천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적당한 부(富)와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현실적인 행복에 대한 갈망이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인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편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는 것,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와 반대로, 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주님의 탄생이라는 소식이,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겠다는 생각도 함께 찾아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실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실 분입니다. 다른 한편,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당신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정의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을 거두어 주실 분, 신비로운 방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도록 해 주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께서 우리 인간을, 그것도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겠다는 소식을 지금껏 함께 들어 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미사를 통해 우리가 수도 없이 부르고, 그 앞에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애써 우리가 찾아온 주님입니다. **강권**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르침 ⑦

스승이신 주님의 몸은 가르치지 않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흔히 가르치는 일이 오로지 성직자의 몫이고 평신도는 어디까지나 학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있다고 여겼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님의 무류성(오류가 없다는 말. 교황님께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장엄하게 가르치실 때에는 성령께서 보호하시어 틀릴 수 없다는 뜻)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교황님 개인의 특권인 것처럼 오해하였습니다. 교황님을 필두로 한 성직자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평신도는 배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 무류성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더욱 굳어져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지만 참된 스승은 한 분 주 예수님뿐이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대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온 교회가 잘못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리하여 세상 모든 신자들을 참된 믿음 안에 일치하게 하는 직무를 맡으셨으므로 성령께서 잘못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교황님만이 아니라 교황님과 결합하여 있는 주교님들과 모든 신자에게까지 미칩니다. 교회현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

“성령께 도유를 받은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의 중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12항)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초자연의 감각, 신앙감

즉 공의회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신자가 한꺼번에 틀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비록 신학의 깊은 공부 없이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신적인 사물에 대한 판단력을 공유하고 있는데, 공의회는 이것을 ‘신앙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감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아 스승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참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문화홍보실

대림시기

대림절은 서양 말로 Adventus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기다림은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세주 오시기를 수천 년 동안 고대했던 구약 시대 사람들의 기다림이고, 둘째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 대한 기다림이며,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러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시기의 전례 중에는 이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지금 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2천 년도 더 전에 이미 세상에 오셨지만, 지금도 성경 말씀과 거룩한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전례주년을 따라 성탄이 매년 돌아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또 매년 성탄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날 이 날에 주님께서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얼굴을 마주 대고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루 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의 끝절에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공성사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막상 생각하면 기쁨과 반가움보다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뵈기에 너무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심을 돌아보고 영혼을 깨끗이 하여 주님 모실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는 뜻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시기 외에 성탄시기에도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고 모든 교우가 고해하는 것을 판공성사라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고해하고 깨끗한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도리이지만, 혹시 늦어버린 교우들도 성탄시기가 끝나는 주님 세례 축일까지 고해하면 판공성사를 본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화해의 성사

고해성사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이 기쁜 일인 줄을 알게 됩니다. 고해성사 때에 신부님을 통해 기꺼이, 기분 좋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를 고하는 신자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서로 죄지를 빌미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래도 고해할 때만큼은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고해하는 신자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햇살 담은 이야기 - 마음으로 읽는 삶의 단상

금광촌을 변화시킨 아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캘리포니아 주에 한 금광촌이 있었습니다. 그 금광촌에는 싸움과 강도, 술 취함과 도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광부들만 사는 그 금광촌의 주민은 단 한 명의 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뿐인 여자가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죽고 어린 아이만 살아남았으니 광부들은 어떻게 아기를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하다가, 결국 아기를 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아기를 나무 상자 안에 누이고 때와 기름이 잔뜩 묻은 수건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재우기에는 나무 상자가 너무 더러워 140킬로미터나 떨어진 도시에 사람을 보내 아기 침대를 사 오게 했습니다. 아기가 덮고 자는 더러운 수건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부들은 다시 사람을 도시로 보내 이번에는 아기가 입을 옷과 담요를 사 오게 했습니다.

광부들은 아기가 잠자는 방의 마루를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매일 아침 광부들은 금광에 들어가기 전에 아기를 한번 안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이 너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비누를 사서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욕도 삼가게 되었고 황폐한 금광촌에 꽃도 심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한 아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의 기적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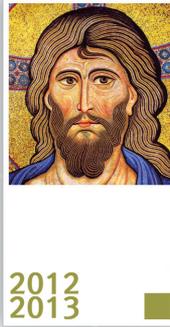
금주의 성인 **성녀 파비올라**

성녀 파비올라 (12월 27일)



로마의 유명한 귀족 가문인 파비아가에서 태어난 파비올라 성녀께서는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말미암아 이혼했다가 재혼 과정의 조당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다. 성녀께서 지난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교회의 품에 안긴 후에는 화려한 생활을 완전히 버리시고 자선 활동에 헌신하셨다. 성녀께서는 서양 최초의 가톨릭병원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희생과 봉사로 열정적인 삶을 사셨다. 성녀께서는 임종하셨을 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여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한다.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1. **공모주제**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2.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12. 11. 25.(일) ~ 13. 10. 31.(목)
4. **출품방법** : 공식 응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contest.daegujobo.or.kr>)
5. **출품내용**
 - 가. 사진 파일 (컬러흑백 모두 가능)
 - 나.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 한글 파일
 - _ 이 사진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경위나 이유
 - _ 피사체에 대한 설명
 - _ 출품인의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
6. **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8, 3074

'신앙의 해' 기념 신앙수기 공모전



1. **공모주제** :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체험
2.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13. 1. 1.(화) ~ 13. 2. 28.(목)
4.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20매 A4용지 2~3매 (한글 10포인트 기준)
5. **출품방법** : 월간 <빛> 홈페이지 (<http://www.lightzine.co.kr>) 신앙수기 공모 코너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6. **문의** : 교구 월간 <빛> 편집부 (053) 255-8405, 250-3157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재물보다는...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제35차 수도생활체험학교

기간: 1.25(금)~27(일)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진지한 수도생활을 갈망하는 젊은이

문의: (010)8353-2323

가르멜 기도학교

기간: 1.26(토)~27(일)

매월 마지막 주, 1박 2일 피정식

장소: 마산 가르멜 피정의 집

대상: 고등, 대학, 일반

선착순: 20명

문의: (010)4650-4628, 회비: 5만원

피정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대구306차: 1.11(금)~13(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2박3일 무료치유피정(작은예수회)

기간: 12.30(일)~1.1(화)

장소: 가평작은예수마을(숙식제공)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앞 11:40

문의: 박데레사, (016)646-0583

제23차 산·구약 성경 통독피정

기간: 1.5(토) 17:00~13(일) 16:00

장소: 루하피정의 집

문의: 오순절평화의수녀회

(055)351-2286 / (011)758-3572

꽃동네 성소자 동계피정

일시: 1.11(금) 17:00~13(일)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상: 고등부~34세 미혼 남녀

참가비: 3만 원, 접수: 1.5(토)까지

문의: (011)464-1265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 겨울피정

초·중·고등부 단체 환경피정(8만 원)

1.7~9, 1.14~16, 1.21~23, 1.28~30

개인·가족 행복론 피정(6만 5천 원)

1.4~6, 1.11~13, 1.18~20, 2.1~3

문의: (033)333-8066

교육 | 모집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2(월)~2013.2.8(금)

과목: 산·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송년 성음악 묵상과 강복

일시: 12.29(토) 17:00

장소: 프란치스카눔 성당

문의: (070)4266-0045

젊은이모임 옛 멤버를 초대합니다

(70~80년대)성모기사회 옛 멤버들 초대

일시: 1.6(일) 14:00

장소: 곤벤뚜알프란치스코회 수도원

2013 제2회 한국 살레시오 청년대회

기간: 2.15(금)~17(일)

장소: 대전살레시오수련원

주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대상: 19세~35세 미혼 젊은이 / 5만원

신청: 1.20(일)까지

문의: (010)9554-3455

미사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김천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2월 26일(수) 오후 7시	김천황금성당
대구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2월 27일(목) 오후 7시	성모당 또는 대화합실
공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9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심건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풍증의학전문의/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강북행복을심는 치과
칠곡 화성3차 아파트와
화성 센트럴파크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053)323-2875,2842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PLUS},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 연세대의학교수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공피부과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흉터
기미 및 레이저 클리닉 운영
T.053-710-0710 피부과 전문의
계명대 동신의료원 외래교수
팔달신시장 옆 덕인빌딩 5층
(주차장 완비) 원장
공수득(가브리엘)

리노류마내과
LINO RHEUMATOLOGY CLINIC
관절염 및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류마티스 내과
원장 김성동(리노)
www.linoclinic.com ☎248-6565
범어네거리 범어롯데캐슬 상가 4층

행사 | 모임

2013년도 동계 사제 성소 피정

중3~고2: 1.8(화)~10(목), 청통수련원
고3·대학일반: 1.15(화)~17(목),
한티피정의 집

(2013학년도 기준,
예비신학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 각 본당 사무실, 마감: 1.2(수)

바뇌의 성모 기도회 월 기도회

일시: 12.27(목) 13:00~15:00
장소: 삼덕성당

교육 | 모집

24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1.19~(5주간, 매주 토) 15: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 문의: 641-5678

스페인어 기초반 모집

개강: 1.15(화), 16(수), 3개월
시간: 화 10:00~12:00 또는
수 19:00~21:00
주최: 가톨릭근로자회관, 대상: 성인
문의: 253-1313

제5기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기간: 1.7(월)~11(금)

문의: 대구청소년 성문화센터
653-7755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모집

교과부 주관 대형국책사업 "3관왕"달성
2014 개교 100년을 맞는 전통의 명문대학
의약/보건/생명과학 분야 특성화 대학
정시 1,316명 모집(나군627명, 다군689명)
접수: 12.22(토)~27(목), 문의: 850-2580

2013학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2(수)~11(금)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대구가톨릭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기간: 1.3(목)~2.14(목) 13:00~17:00
접수: 12.3(월)~24(월), <http://klicu.ac.kr>
대상: 2년·4년대학 4학기이상 수료자
문의: 850-3767, 3160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대상: 여대생 (종교 무관)
주소: 대전 서구 괴정동 114-3
문의: 성체선교클럽라수녀회
(042)534-8876

2013 보육교사 양성과정 신입생모집

2013년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보육교사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문의: 대구가톨릭대 보육교사교육원
850-3056 / 3366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대금,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톨페인팅

채용

동인천주교회 신협 여직원 채용

서류: 자필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 신입 (경력자 우대)
문의: 423-7220

안내

12.25(화) 14:00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회 월례미사는 성탄 대축일
관계로 없습니다.

2013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제출서류: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광고 문안, 사회복지 관련 사업
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
국장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 3074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주유소
전화 안통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프란치스코)
송선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목
아간 진료

약령시사람들
탈모 방지 양모 경옥생 삼푸 & 토닉
경옥고차, 음료, 경옥고추장, 된장, 간청(신제품)
3대를 이어온 경옥 명가 (약령한, 경옥활력소)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T. 1644-8807, (053)428-8002
+ 교우님 특별대 판매

Offtop
doctor's cosmetic®
이스라엘 사해 미네랄의 24시간 수분 보호막
전문이가 처방한 건강한 보습제 **오프토피!**
대표 손민정(루시아)
www.offtop.com
(053)526-0363~4
지하철 2호선 두류역 2번 출구 달성피부과 3층

수업내과
당뇨 / 고혈압 / 신장질환 전문
공단건강검진 / 위, 대장 내시경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건현(라파엘)
상담의 ☎(053)642-7575

30년 전통의 전자파없는 돌침대
(주)장수구름옥돌침대
2인용 옥돌침대 88만원
1544-3837
(053) 656-9990
앞산대거리 (보훈청 옆건물)
대표 : 소훈호(레오)